

“40년 삶의 터전 마로해역 어업권 보장하라”

해남 김양식 어민들 전남도청서 집회
진도군 “어장면허 만료…더 이상 안돼”
양식어장 1370ha 반환 놓고 법적분쟁

“40년 삶의 터전 마로해역의 어업권을 보장하라”

3일 오전 10시 무안군 남악신도심 전남도청 앞. 해남 김양식 어민 500여명이 ‘생존권 보장’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법적 분쟁 중인 마로해역의 어업권을 놓고 지난달 29일 마로해역에서 해상 시위를 벌인데 이어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육상 시위를 이어갔다.

마로해역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40년 삶의 터전을 보장해 줄 것을 전남도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마로해역의 어업권 분쟁은 지역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선조부터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을 지키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남군과 진도군 간 첨예한 갈등에 대해 전남도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고 적극 중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도 2차례 변론을 통해 “법적 판단이 아닌 조정 결정이 이뤄지도록 양측이 조정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진도-해남 간 마로해역 분쟁은 지난 6월7일 진도수역에서 김 양식을 하는 해남어민들에 대한 어장면허 합의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마로해역 양식 어장 면허면적은 총 1만2000여ha로 이중 진도수역이 80%를, 해남수역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진도수역에서 해남 어민들이 김



3일 오전 무안군 남악신도심 전남도청 앞에서 해남지역 어민들이 마로해역 어업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양식을 하는 1370ha다.

이 곳은 1982년 해남 어민들이 최초 개발했지만 진도 어민이 진도 해상임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양측 간 갈등은 1999년 어민들이 어장 정리에 합의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2010년 어업권 1차 유효기간이 끝나자 진도가 어장 반환을 해남에 요구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당시 지자체와 법원은 지속적인 화해와 조정으로 분쟁 대상인 1370ha는 해남 어민이 2020년까지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신규로 1370ha의 면허를 내 주기로 하고 마무리했다.

하지만 올해 기존 어업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수역의 새 어업권이 재개발되자 분쟁이 재점화됐다.

해남 어민들은 기존 어업권이 새 어업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지만, 진도어민들은 어업권 종료로 해남 어민들에게 부여했던 어업권도 진도에 회수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진도 측은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른 해남어업인 면허 기간이 끝났으므로 진도수역 어업 행위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남 측은 “법원의 화해 조정 결과는 어장 면허 기

간 갱신과는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과 함께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양 지자체와 함께 양식 양식 어민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해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3개월사이 20여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이해 대립이 뚜렷해 중재안 마련이 쉽지 않았다”며 “재판과 별개로 지역 어업인, 진도군, 해남군 등 이해 당사자들과 접촉하면서 중재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신안군, 쓰레기 처리 시설 공동 건설·운영

목포 대양동 소각시설 조만간 착공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 중인 목포시와 신안군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건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대양동 환경에너지센터 내 자원회수(소각) 시설(조감도)의 설치를 신안군과 공동 추진하고 있다. 양 지자체는 지난 2018년 시설에 대한 공동건설과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공사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협약은 대양동 소각시설이 완공되면 지도·압해읍 등 신안군 8개 읍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설의 처리용량은 신안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0t을 포함해 하루 220t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3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목포시는 현재 준비 중인 제3차 제안공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995년 조성된 목포시 위생매립장은 현재 매립율이 98%에 달해 재활용을 위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파내 토사는 재활용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분리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자원회수(소각)처리시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알려져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이슈화된 양 시·군의 행정통합 논의와는 별개로 광역행정을 통한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시설이 완료되면 목포시뿐만 아니라 인접 신안군의 생활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국립해양조사원, 신안 연안 해수흐름 밝힌다

임자도 협수로 등 10곳 조류 관측

해양조사원 서해해양조사사무소가 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5일간 신안 임자도 부근 해역에서 조류 관측을 실시한다.

이 해역은 섬이 많은 곳으로 수심이 낮아 유속이 빠르고 좁은 항로가 많아 항해하는 선박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

이번 해양조사는 협수로·퇴(退) 등 선박 안전운항에 주의가 필요한 주요 10개 지점에서 실시된다. 5개 지점은 1일(25시간) 이상, 나머지 5개 지점은 30일 이상 관측을 수행한다.

퇴(退)는 대륙붕에서 언덕 모양으로 높게 솟아 오른 곳을 말하며 고기 떼가 많이 모인다. 이번 임자도 관측에는 낙월사퇴, 대치마퇴, 오도복사퇴 등이 대상이다.

조류 관측은 이미 해상에 설치된 항로표지에 소형 해양관측부이를 연결하고, 그 부이에 유속계를 해수면 아래 5m 지점에 설치해 바닷물이 흐르는 방향(유향)과 흐름의 세기(유속)를 정밀하게 관측하게 된다.

서해해양조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류관측



을 통해 취득한 해양조사 자료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선박의 안전항해 및 경제항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양예보 검증에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돼 조류예측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연안의 조류관측예측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 국가해양정보 마켓센터 등)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간행하는 수로도서지(조류표, 조류도 등)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군 도시재생 사업 3개 권역 6곳 본격 추진

완도군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지역으로 3개 권역 6곳을 선정, 본격 추진한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뉴딜사업 선정 지역은 중심재생권역인 완도를 중앙리·향동리·노두리, 군외면 원동리 등 4곳이고, 동부권역은 금일읍 감목리, 서부권역은 노화읍 이목리이다.

완도군은 ‘바다와 사람을 잇는 해양치유도시 완도’를 비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해양도시 재생, 안전하고 행복한 정주환경 개선, 함께 성장하는 주민공동체 활성화라는 4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완도를 중앙리·용암리에는 ‘스카이 브리지’ 등 소규모 재생사업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완도를 향동리에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마을 소통로 개설과 안전·생활 인프라 기반을 구축한다.

완도를 노두리에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사업을 추진한다. 하수도 정비 사업과 이웃마음을 연결한 소통로 개설 등이 주요 사업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풍 맞고 자란 완도 해변포도

미네랄 풍부 당도 으뜸

8월 해양치유식품 선정



완도군은 8월 해양치유식품으로 제철을 맞은 ‘완도자연그대로 해변 포도’를 선정했다.

청정한 해안가에서 재배되는 해변 포도는 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과 당도가 높다. 당도는 17브릭스(Brix) 이상으로 타지역 포도보다 1~2브릭스 정도 높다.

이는 온난한 해양성 기후와 해풍, 풍부한 일조량 등 완도 자연조건의 영향이다.

하우스 포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수확해 판매되고 있으며, 노지에서 재배되는 포도는 8월 하순부터 수확한다.

완도군 군외면 해안도로를 이용하면 당일 수확한 싱싱하고 달콤한 포도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포도는 ‘과일의 여왕’이라고도 불린다.

비타민과 아미노산, 유기산이 풍부해 피로 해소와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포도의 껍질과 씨에 들어 있는 레스베라트롤을 성분은 노화 방지·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빈혈에 좋은 철분과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안토시아닌 성분도 풍부하다.

동의보감에는 ‘포도는 기운이 나게 하며 이뇨 작용을 도와주고 기혈과 근골을 보강하고 비위, 폐, 신장을 보하여 몸을 든든하게 한다’고 기록돼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ejhung@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의료시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